

## 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폭염(고수온)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고수온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태세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 11일(목) 14시부터 「폭염(고수온)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발령하였다.

\*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1단계 → 심각 2단계

국립수산물과학원이 서·남해 제주 연안의 21개 해역\*에 대하여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7.11, 14시부)함에 따른 조치이다. 해당 해역은 다음 주 장마전선 북상 후 수온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주요 연안 수온(7. 11. 9시 기준) : 함평만·득량만·여자만(25.2℃), 천수만(24.8℃), 사천만·강진만(24.4℃), 제주 동부 앞바다(23.9℃)

올해 국립수산물과학원의 고수온 예비특보는 6월 중순부터 지속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다소 늦게 발표\*되었다. 다만, 올 여름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과거 30년 평균)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주 장마전선 북상 이후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23년 7월 6일 고수온 예비특보 첫 발표

해양수산부는 190개소 수온 관측망을 통해 관찰한 실시간 수온 정보를 지자체와 어업인에게 문자와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10개 광역지자체에 액화산소 공급기 등 고수온 대응장비를 지원하였다. 양식장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영어·인도네시아어 등 외국어로 된 양식장 관리요령도 배포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마 이후 본격적인 수온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함께 양식장 준비상황을 직접 살펴볼 계획이며 어업인분들께서는 사육밀도 조절, 대응장비 점검 등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승준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심수빈 (044-200-5392)
			사무관	유병동 (044-200-5616)
	국립수산물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책임자	과 장	한인성 (051-720-2210)
		담당자	연구관	양준용 (051-720-2750)
			연구사	황재동 (051-720-2751)
			연구사	이시우 (051-720-275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고수온 예비특보 해역도**  
(2024년 7월 11일)